

‘4전 5기’ 류현진 973일만의 승리



류현진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의 2017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5.1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다. 류현진의 승리는 올 시즌 다섯 번째 등판 만에 처음이자 2014년 9월 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선발승 이후 2년 8개월(973일) 만이다. 류현진이 3회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ML 필라델피아전 5.1이닝 1실점...지난 경기 QS 등 기량 회복 기대감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왼손 투수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다섯 번째 도전 끝에 시즌 처음이자 973일 만의 승리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1일 2017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5.1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다. 안타와 볼넷을 3개씩 내줬고 삼진을 올 시즌 최다인 9개(중전 7개)나 잡았다. 2-1로 앞

선 상황에서 세르지오 로모에게 마운드를 넘긴 류현진은 다저스가 결국 5-3으로 이겨 승리투수가 됐다. 류현진의 승리는 올 시즌 다섯 번째 등판 만에 처음이자 2014년 9월 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선발승 이후 2년 8개월(973일) 만이다. 왼쪽 어깨와 팔꿈치를 차례로 수술받고 오랜 재활을 거친 류현진은 앞선 네 차례

등판에서 4패, 평균자책점 4.64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방문경기(6이닝 1실점)에서 961일 만의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를 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부상 이전의 기량을 보여줬다. 류현진은 타석에서도 볼넷에 이어 중전 안타로 시즌 2호이자 통산 21번째 안타를 기록하는 등 투·타에서 제 몫을 다했다.

이날 93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의 최고 구속은 시속 약 148km에 머무는 등 속구는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변화구 비중을 높여 필라델피아 타선을 노련하게 공략했다. 특히 자신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에 잘 대처하고 나온 듯한 모습을 보이자 커브와 슬라이더를 섞어 결정구로 활용하며 상대를 요리했다. 류현진의 1회는 이날도 순탄치 않았다. 첫 타자 세사르 에르난데스의 타구를 우익수 야시엘 푸이그가 잘 따라갔으나 공이 글러브 안에 들어갔다 뿜겨 나오는 바람에

3루타가 됐다. 이어 프레디 갈비스에게 중전안타를 맞아 선제점을 내줬다. 대니얼 나바에게 볼넷을 허용해 이어진 무사 1:2 루 위기에서 탈삼진 두 개를 곁들이며 더는 점수를 주지 않았으나 1회 투구 수는 24개나 됐다. 류현진의 등판 때마다 침묵했던 다저스 타선은 선두타자 앤드루 톨스의 2루타를 시작으로 연속 3안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자 류현진은 2회초 투수 피베타에게 커브로 헛스윙 삼진을 유도하는 등 공 11개를 던져 삼자범퇴로 끝내며 안정을 찾았

다. 다저스는 2회말 1사 후 크리스 테일러의 좌월 솔로 홈런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류현진은 4회 마이클 손더스와 토미 조셀을 거꾸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다시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넘겼다. 5회초에는 선두타자 캐머런 러프에게 좌월 2루타를 맞았지만 피베타 타석에서 포수 견제로 러프를 잡은 뒤 후속타자를 범타 처리해 위기를 넘겼다. 류현진은 6회초 선두타자 갈비스에게 볼넷을 허용하고 나바를 삼진으로 잡은 뒤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연합뉴스

반계임차 불안한 1위...‘고척 악몽’ 탈출하라

T 타이거즈 전망대

넥센·롯데와 원정 6연전
 헥터-팻딘-양현종 선발
 ‘키스톤 콤비’ 적응 관전
 롯데전 ‘4번 타자’ 대결

‘호랑이 군단’이 1위 수성을 목표로 원정 6연전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황금연휴 기간 넥센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안방으로 간다. 1위 수성과 함께 고척 악몽 탈출이 주종 넥센전의 키워드다. 지난달 14일 1440일 만에 단독 1위 자리에 오른 KIA는 4월 한 달 18승8패, 0.692의 승률을 기록하며 선두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2위 NC 다이노스의 기세가 무섭다. KIA는 지난 주말 거침없는 연속 행진 속에 2위로 뛰어오른 NC를 상대로 1승 2패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0.5게임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2일 두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1·2위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고척은 지난 시즌 패배의 무대였다. 고척 첫 경기에서 한기주가 ‘한 이닝 만루 홈런 두 개’라는 쑥스러운 기록을 남겼고 이어 양현종이 3-4, 완투패를 기록했다. 헥터도 역전패의 주인공이 되는 등 첫 시리즈부터 빠직거렸다. 돌아온 임창용의 첫 볼론 세이브가 남은 곳도 고척이고, 김주찬은 그라운드 홈런 포함 연타석 홈런이라는 진기록을 남기고도 팀의 패



5연승의 KIA 헥터가 2일 고척 스카이드에서 열리는 넥센과의 원정 경기에서 한현희와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KIA 타이거즈 제공>

배를 지켜보아야 했다. 고척 개장 첫해 KIA의 성적은 7연패 뒤 1승이다. 고척 악몽 탈출을 위해 헥터가 마운드 전면에 선다. 2일 선발로 나서는 헥터에게는 6연승 도전이다. 개막전 7-2 승을 시작으로 헥터는 5번의 등판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세부 기록도 훌륭하다. 5경기에서 37이닝을 소화하며 리그에서 가장 높은 이닝 소화율을 보인다. 4월7일 두산

전 완투승 경기를 제외한 4경기를 모두 7회까지 책임졌다. 또 많은 이닝을 소화했지만 5명의 주자에게만 홈을 허용하면서 1.2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앞선 등판에서 모두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지난 26일 삼성과의 경기 끝난 뒤 포수 김민식은 “앞선 등판에 비해 헥터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세계 단지면 공이 떠서 변화구 승부를 많

이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면 헥터는 이날 7이닝 4피안타 2볼넷 5탈삼진 무실점의 기록을 남기며 노련함을 과시했다. 팻딘-양현종으로 이어지는 마운드가 듬직하지만 수비가 숙제다. 내야의 타구가 빠르고 동전장 구조물 사이로 뜬 공을 쫓아야 하는 만큼 수비진에게는 까다로운 구장이다. 특히 센터라인의 핵심 김선빈과 안치홍에게는 처음 고척에서 치르는 경기다. 여기에 4월 1일 행보를 하면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소모가 컸던 만큼 수비 집중력이 승패의 관건이다. 주말 3연전은 4번 타자를 중심으로 한 타선의 힘겨루기 양상이다. KIA와 롯데는 각각 고향으로 돌아온 최정우와 이대호를 ‘4번 타자’로 해 2017 시즌 타선을 새로 구축했다. ‘4번 타자’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타선의 파워 싸움으로 시작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나지완도 롯데전 중요한 무기다. 지난주 만루홈런 포함 2개의 홈런을 더하며 150 홈런 고지에 오른 나지완은 롯데가 반갑다. 나지완은 지난 시즌 롯데와의 14경기에서 48타수 22안타, 0.458의 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25개의 홈런을 기록한 그가 롯데 투수들로부터 뽑아낸 한방은 8개에 이른다. 이 중 6개를 적자에서 터뜨렸다. 문제는 지난 시즌 타선의 두 축이었던 김주찬과 이범호다. 두 사람의 들쭉날쭉한 타격이 계속되면서 중심타선의 힘이 떨어졌다. 특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김주찬은 24경기에서 0.186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치며 ‘3번 고인’을 남겼다. 롯데전 기선 제압을 위해 전·현직 ‘캡틴’의 부활이 절실하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U-20 대표팀 “월드컵 4강 이상 진출할 것”

파주 소집...최종 담금질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을 향해 최종 담금질에 들어갔다. U-20 대표팀 21명은 1일 오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돼 오는 20일 개막하는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비에 들어갔다. 신 감독은 지난달 소집훈련에 참가한 25명 중 포지션별 최고 능력을 갖춘 선수와 멀티 플레이어를 총괄하는 21명의 최종 명단을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바르사 2인방’ 백승호(바르셀로나)와 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닐)를 주축으로 한 대표팀은 1983년 멕시코 대회에서 기록한 ‘4강 신화’ 재현에 나선다. 대표팀은 개막까지 3차례의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한편, 최정예 선발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8일에는 파주 NFC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공개 평가전을 가진다. 11일과 14일에는 U-20 월드컵 본선 진출국인 우루과이(청주), 세네갈(고양)과 각각 맞붙는다. 이들 팀은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를 가상

한 스파링 파트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와 함께 ‘죽음의 조’인 A조에 편성됐다. 선수들은 반드시 4강 이상 진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주장 미드필더 한찬희(전남 드래곤즈)는 “우리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3월) 4개국 대회 때보다 몸이 더 좋아졌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조별리그 첫 경기인 기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꼭 4강 이상 가고 싶다”고 기대했다. 수비수 정태욱(아주대)은 “수비수이다 보니깐 골을 먹지 않는 것이 목표다. 수비가 강하면 지지는 않는다”며 “최종 목표는 우승”이라고 당차게 말했다. 정태욱은 4개국 조별리그 준비기간에 상대 선수와 헤딩 경합 중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기도 했다. 백승호는 “세계가 집중하고 있고,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다. 간절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기회가 왔는데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승우는 “한 경기 한 경기 결승전이라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결승전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달, ATP 바르셀로나 오픈 10번째 우승

라파엘 나달(5위·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총상금 232만 4905유로)에서 통산 10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나달은 1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도미니크 팀(9위·오스트리아)을 2-0(6-4, 6-1)으로 완파했다.

2005년 이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오른 나달은 2009년까지 대회 5연패를 달성했고,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우승을 일궈냈다. 나달은 또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바르셀로나오픈을 제패하면서 한 대회에서 통산 10번 우승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연합뉴스